

한·중 석유 무역의 현황과 전망



김재영

〈북경 석유대학 공업관리학과 석사과정〉

1. 중국의 석유산업

1963년 흑룡강성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유전인 대경 유전이 개발되기 이전 중국의 석유산업은 구소련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와 생산량의 한계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대경유전의 본격적인 생산 이후 중국은 석유의 기본적인 자급을 실현해 나가고 1973년 3월 중일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일본에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석유산업은 두각을 나타낸다. 이후 원유 수출은 중국의 외화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높은 기여를 하게 된다.

중국의 원유 수출량은 1962년부터 1994년까지 총 38,633.2만 톤으로 이는 미화로 환산하면 526.5억달러(인민폐 1,817.4억원)이며 그 기간 전체 수출에 평균 6.52%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80년대는 원유수출의 최고 호황기로서 『六五』 기간에는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였고, 85년에는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미화 67억달러를 창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을 주로 하는 7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八五』기간에 들어서 대경, 승리, 요하 등의 대형 유전의 생산량이 감소추세로 돌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 수요량의 급증으로 1996년에는 수출 여력이 감소하고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게 된다.

한편 중국의 석유제품은 원유와 비교해 정유시설의 미확충으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형편이다. 특히 급격한 경제 성장과 1992년 석유제품 시장 개방으로 인해 1993년에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지에서 많은 양의 제품을 수입해오고 있다. 1950년에서 1994년 까지 석유 제품 수입량은 총 14,424.5만 톤으로서 미화 195.2억달러(인민폐 1,058.3억원) 어치에 달하여 이는 이 기간 전체 수입의 2.4%를

차지한다.

2. 한·중 석유 무역

지리적, 역사적 요인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중 양국간의 무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오랜 기간의 침체 시기를 거친 후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첫 석유 무역은 1989년 한국이 제 3국을 통해 110만 톤의 중국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양국이 1992년 8월 24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석유 무역은 활기를 띠게 되어 중국의 대한민국 원유 수출이 급증하였고, 한국의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도 큰 발전을 이루며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교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경제 고도 성장에 따른 중국 내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는 한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석유제품 시장이 개방되던 1992년 한 해에 수입된 석유제품 1,740만 톤 중 전체 석유제품 수입의 12.6%에 해당되는 220만톤이 한국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1) 석유 수출입 현황

가. 원유 분야

1989년 한·중이 첫 석유 무역을 시작한 이후 중국의 대한민국 원유수출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 왔다. 1989년 110만톤의 원유 수출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연간 평균 13,668천배럴을 수출했다. 1996년에는 한국이 23,218천배럴의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는 한국 원유 수입량의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수교전인 1991년의 1.89%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대한민국 원유수출의 증가를 반영해 준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내 고도 산업 성장에 따른 석유 수요의 증가로 전략적으로 원유수출을 감소시키려 하기에 앞으로 한국이 중국원유의 대량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리상의 이점에서 나오는 경제효과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원유수출은 일정한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1〉 1991년-1996년 한국의 중국 원유 수입 수량
(단위 : 천배럴)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A	7,551	12,436	11,961	13,080	13,761	23,218
B	399,304	507,337	573,026	573,026	624,945	721,927
C	1.89%	2.44%	2.13%	2.28%	2.20%	3.22%

〈자료〉 대한석유협회, 통계자료 1997.2

A: 대중국 원유 수입량
B: 한국의 총원유 수입량
C: A/B

나. 석유제품 분야

한국은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동시에 매년 일정량의 경유, 등유, 나프타, Reformate 등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 중 Reformate의 수입이 제일 크다.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경유의 거래는 줄어든 반면 등유의 거래는 큰 폭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 1,221,825배럴 증가에 증가율 90.18%를 기록했다. 한편 1996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항공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표-2〉 1994-1996 중국의 대한민국 석유제품 수출 수량과 금액

(단위 : 천배럴,천달러)

	등유	경유	나프타	리포메이트	프로판	Jet유
1994	133	2,114	279	7,359	38	-
1995	304	1,609	-	8,618	-	-
1996	1,354	1,358	-	6,782		80
1996년 거래액	45,872	41,016	-	167,549		2,364

〈자료〉 대한석유협회, 통계자료 1997.2

한편 중국은 한국에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석유제품의 수입량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3〉 1994-1996년 한국의 대중국 석유제품의 수출

(단위 : 천배럴, 미화)

	Jet유	경유	나프타	B-C	프로판	아스팔트
1994(A)	607	5,630	689	6,890	278	361
1995	1,647	10,807	1,086	7,904	915	522
1996(B)	2,499	11,274	1,849	17,465	2,001	433
B-A/B	75.71%	50.06%	60.74%	60.54%	86.11%	19.86%

〈자료〉 대한석유협회, 통계자료 1997.2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1994년과 1995년 사이 중국의 한국 석유제품 수입 증가율은 항공유가 75.71%로 가장 높고 나프타 62.74%, B-C 60.54%, 경유 50.06% 등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량으로 보면 B-C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경유가 잇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대중국 나프타, B-C, 경유, 특히 항공유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다음의 중국 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초설비 부문의 투자 증대의 일환으로 1995년 중국 국내의 광둥, 주해, 허북성의 석가장, 운남성의 여강과 대리 그리고 산둥성의 위해 등 9개 비행장이 신설되는 한편, 기존의 북경, 광주, 상해 공항의 항로와 운행편이 늘어남에 따라 항공유의 공급부족이 야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제부문 담당 국가 기업인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는 항공유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항공유의 수입이 급격히 늘게 되었다.

나프타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에틸렌 공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1996년 북경, 광주, 천진과 하남성에 있는 기존 공장의 확충과 새로운 공장의 설립 등에 따라

나프타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B-C유의 경우에는, 중국내 수입량이 가장 큰 석유제품으로서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의 수요증가를 수입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유의 수입이 증대하는 까닭은 중국이 다른 석유소비 대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경유의 소비가 전체 석유제품 소비 중 60%를 좌우한다는 사실에 있다. 자국산 원유에서 나오는 경유는 분별층류의 회수율이 낮고 정유시설 생산방식의 제한 때문에 중국은 매년 600만 톤의 경유를 수입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다. 거래 방식

1989년 일본종합상사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양국간의 석유무역은 현재 Dealer to Dealer Base, Major를 통한 거래, 그리고 Spot거래등의 3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94년 거래방식을 보면 D-D Base와 Spot거래가 각각 82%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된 원유는 대경과 승리 유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Major를 통한 거래가 추가되어 전체 거래의 3%를 차지했고 거래하는 유전 또한 남해유전과 유희유전이 추가되었다. Spot거래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중국 국내 원유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경과 승리유전 등의 대형 유전의 수출 생산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과 장기거래가 기대하는 안정된 생산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2) 한·중 석유 무역의 특성과 그 전망

한·중 양국의 석유 무역에 있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특성으로 다른 일반 무역과 마찬가지로 거리상의 이점에 따른 비용 절감의 경제효과와 한국의 석유제품의 과잉생산과 중국의 석유

〈표-4〉 1994년 한국의 중국원유 수입 방식표

(단위 : 배럴, 미달러)

방식	유전	수량	F.O.B	C & F	C.I.F
Dealer to Dealer Base	승리	4,243,898	57,480,787	60,027,126	60,069,565
	대경	6,529,525	104,447,089	107,130,455	107,183,772
Sub-Total		10,773,423	161,927,876	167,157,581	167,253,337
Spot	승리	397,337	5,884,566	6,124,566	6,127,935
	대경	1,909,225	28,157,081	28,823,221	28,835,969
Sub-Total		2,306,562	34,041,647	34,947,787	34,963,904

〈자료〉 대한석유협회, 통계자료 1997.2

〈표-5〉 1996년 상반기 한국의 중국원유 수입 방식표

(단위 : 배럴, 달러)

방식	유전	수량	F.O.B	C & F	C.I.F
Dealer to Dealer	승리	1,536,671	25,733,929	26,995,667	27,011,034
	대경	2,818,648	53,162,697	54,610,115	54,631,450
Sub-Total		4,355,319	78,896,626	81,605,782	81,642,484
Spot	승리	363,356	6,141,803	6,333,803	6,336,198
	유화	437,947	7,957,496	8,247,496	8,252,323
	대경	512,108	9,673,722	9,924,655	9,929,776
Sub-Total		1,313,411	23,773,021	24,505,954	24,518,297

〈자료〉 대한석유협회, 통계자료 1996.7

〈표-6〉 1996년 한국의 중국원유 수입 방식표

(단위 : 배럴, 달러)

방식	유전	수량	F.O.B	C & F	C.I.F
Dealer to Dealer	승리	3,108,632	544,377,404	56,849,647	56,878,282
	대경	7,444,906	149,592,617	153,243,699	153,298,821
Sub-Total		10,553,538	693,970,021	210,093,346	210,177,103
Major	유화	743,118	16,092,475	16,803,613	16,803,111
Sub-Total		743,118	16,092,475	16,803,613	16,803,111
Spot	승리	363,356	6,141,803	6,333,803	6,336,198
	유화	8,951,532	172,963,788	179,446,840	179,486,599
	대경	2,134,707	44,358,641	45,317,318	45,364,968
	남해	472,100	9,418,595	9,707,872	9,713,384
Sub-Total		11,921,695	232,882,827	240,805,833	240,901,149

〈자료〉 대한석유협회, 통계자료 1996.7

제품 수요 증가의 상보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90년대 들어서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석유생산의 증가속도가 국내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 수요

를 충족시키지 못해 수입이 전면적으로 상승하고 수출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1991년에서 1994년 원유 생산량은 매년 1.5%가 감소했고 수요증가율은 6-7%를 이루

고 있다. 이런 석유수급의 불균형은 중국 산업에 필요한 석유공급에 있어 수입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의 이점과 잉여 석유제품의 수출여력을 보유한 한국은 중국석유제품 시장에서의 주요한 수출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가. 거리상의 이점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에 있어 가장 큰 이점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수송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석유무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양국의 가장 거리가 짧은 두개의 항구 즉 인천과 중국 산둥성의 상해 항구의 거리는 단지 200마일로 순수 항해 거리는 15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놓인 황해는 기후 조건이 좋고 파도가 적어 수송이 안전하고 적기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은 현재 중국의 중요한 원유수입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해 불때도 유효하다. 중국의 광둥성은 현재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가장 큰 지역이다. 싱가포르에서 광둥성까지는 약 1550마일로 119시간의 항해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울산에서 광둥성까지는 1181로 91시간이 소요되 싱가포르에 비해 28시간이 단축된다. 특히 중국의 연안 지역의 항구와 교역시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운송시간의 이점이 있다.

사실 중국 석유시장에서 싱가포르의 유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중인 한국은 1994과 1995년 사이의 중국 석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11%에서 18%로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는 61%에서 58%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의 원유 수입에 있어서도 짧은 거리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흑룡강성의 대경원유가 송유관으로 요령성의 대련까지 운송된 후에 대련에서 SK 공장이 위치한 울산까지의 거리는 총 594마일로 46시간이 걸린다. 한화에너지공장이 위치한 인천까지는 250마일로 단 19시간이 소요될 뿐이다. 이는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가인 사우디의 JUBAIL 항구에서 울산까지의 거리 6288마일,

소요시간 484시간과 비교해 볼 때 무려 18-19일이 단축되는 거리다. 이상과 같은 거리상의 이점은 결국 수송원가가 절감되고 적기성이 보장되어 재고관리가 편리해짐으로써 다른 교역국가가 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석유제품 교역의 상보성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다음의 석유 소비국인 가운데 석유제품 시장은 앞으로 일본 시장보다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의 증가로 이미 1993년에 석유제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의 기초 설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늘어가는 공항, 에틸렌 공장, 제철소와 발전소 등이 요구하는 각 석유제품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한국은 정유시설의 확충에 따른 과잉생산된 석유제품의 수출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황함유량이 높은 석유제품의 수출이 필요하다. 실제로 1995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4년의 147.2만톤과 비교해 불때, 1995년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양은 259.1만 톤으로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 출광석유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정유시설 확대 이후 2000년까지 나프타의 부족 2.6천만 톤을 제외하고 휘발유 2.5천만 톤, 등유 2.0 천만 톤, B-C유 7.6 천만 톤의 공급과잉현상이 전망된다. 이에 중국은 나프타 7.8 천만 톤, 휘발유 18.5천만 톤, 등유 1.4 천만 톤, 디젤 7.3천만 톤, B-C유 9.2천만 톤 등의 공급부족 현상이 전망된다.

이와 같은 한·중 양국의 석유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보완성과 거리상의 이점에서 오는 경제효과 기대 등의 요인으로 앞으로 양국간의 석유 무역의 전망은 밝다고 말할 수 있다. ☺